

일진 자본, 설날 선물로 자부·자회 손해·가입료 청구

본사 입주 식당·커피숍 직원까지 손해 동원...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열어 규탄

충북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입료를 지행한 일진다이아몬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충북 34개 단체와 정당은 1월 22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 사측에 손해배상 철회와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세 명과 일진다이아



몬드지회 조합원 여덟 명을 상대로 8억 2천 386만 1천3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속 10년 차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가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8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손에 질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돈으로 압박해 금속노조 지회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내용을 보면 의도가 명확하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향의 방문과 농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농성 때문에 경비인력을 늘리고, 보안시설물을 추가 설치했으니 비용을 배상하라고 한다. 본사 로비를 사용해서 농성했으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놓으라고 한다. 본사에 입주한 다른 직원들이 공포감, 혐오감,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니 손해배상하라고 한다. 본사 건물 미관이 훼손됐고, 예술작품의 효용이 떨어졌으니 배상하라는 것이다. 지회가 농성하는 동안 본사 건물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했다.

본사 건물에 찾아온 손님들 도 통행을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일진 사측만 호들갑 떨면서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경비인력을 늘리고 보안 시설을 설치했다. 일진 자본은 억지로 짜 맞추듯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본사 건물에 입주한 중국음식점, 커피숍 직원들까지 동원해 직원들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건물 앞 예술작품 효용 떨어졌으니 배상하라”

김태운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진다이아몬드는 노조탄압을 1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고, 파업은 장기화하고 있다. 직장폐쇄, 손해배상 청구로 일관하면서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회사의 태도 때문이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재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현재 교섭은 사측의 시간 끌기 수단일 뿐이다. 교섭으로 갈등

을 해결할 생각 없이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위축시키고, 와해할 생각뿐이다”라고 지적하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규탄사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일진 자본은 200일 넘게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자본이 금력, 권력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걸고 싸우는 노동자를 주저앉히겠다며 사실상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야단쳤다.

박윤준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은 “손배 가입료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반인륜 행태였다. 지금 일진 자본은 구시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미련하고 나쁜 짓이다. 음성의 시민사회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와 함께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지난 주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에서 벌어진 황산, 질산, 염산 등 유독물질 배출 사건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음성군청은 1월 15일 일진다이아몬드가 유독물질을 중화조 작동 없이 그대로 대기과 하천으로 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청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과태료 200만 원 처분으로 졸속 마무리했다. 일진다이아몬드가 노동, 환경 등 각종 영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과 언론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쌍용차범대위, 해고자 완전 복직 위해 다시 투쟁

“무기한 휴직 통보는 위법” ... “문성현이 ‘임금 70% 준다는데 참으면...’ 이라고 했다”

“임금 70% 준다는데 뭐 하러 일하고 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공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몇 몇 하게 100%의 임금을 받고 싶어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쌍용차 작업복을 선물 받은 장준호 조합원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장준호 조합원은 복직 첫날부터 쌍용차 대회의실로 출근해 ‘무기한 휴직 철회와 부서 배치’를 요구하며, 1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10여 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공장 밖에서 싸운 세월을 이제 공장 안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시민사회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492명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09년 어버이날 해고통지서를 날리더니 2019년 성탄절 전야에 무기한 휴직 통보서를 날린 쌍용차가 과연 한국 사회에 필요

한 기업인지 물었다.

2009년 어버이날 해고 통보, 2019년 성탄 전야 무기한 휴직 통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만든 사회적 합의가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목인으로 깨졌다. 이번 휴직 통보는 해고자 46명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든 사람을 부정하는 행위이다”라고 규탄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쌍용차 무기한 휴직 통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송 사무총장은 “노·노·사정 네 주체가 함께 만든 사회적 합의를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으로 깰 수 없다. 또한 복직은 개인 노동 문제다. 노동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권한 없는 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무

기한 휴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금 70%를 준다는데

참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고 한다. 합의 파기에 함께 공분해야 할 합의 당사자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는 ▲사회적 합의 파기 대국민 사과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복직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목표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월 3일 범국민대책위 각계각층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시작한다. 1월 21일 19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매주 문화제를 개최한다. 2월 초순에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외투 자본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